

[주제발표 II]

대학생 환경 보전 활동의 방향과 활성화 방안

최 경 송(서울대학교 철학과 학생)

1. 대학생 환경 활동의 특성

우리가 한국에서의 대학생 환경 활동을 놓고 토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이라는 테마와 '대학생'이라는 테마를 각각 독립적으로 고찰하고 이후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인식들을 갖추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환경문제: 그것은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의 사회공간 확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언론도 사회단체도 모두 이 과제를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과제는 이미 국제정치의 판을 좌우하는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환경문제를 둘러싼 공간-- 지역, 도시, 전지구적 차원 --이 새롭게 구조화된다. 또한 그 공간을 메울 주체들-- 지역주민, 주부, 전문가, 시민 --도 역시 새롭다. 환경문제는 그 주체들에게 환경친화적 생활양식과 환경활동의 활성화를 요청한다.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국지적으로 행동하라!"의 정신을 요청한다. 때로는 '생존'의 절박한 위기의식 가운데, 때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전망 가운데.

다음은 대학생: 특히 환경문제는 대학생에게 가장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 이들은 한국의 어떤 계층보다도 운동적이며 행동적인 그룹이다. 또한 높은 사회구조적 인식도와 전문적 의욕 등으로 충만한 그룹이다. 실험정신이 강하며 자신이 집

중한 한 지점에서 자신의 열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룹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사회가 환경문제를 던져주자마자 곧바로 나서면서 그 핵심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사회가 내놓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반응과 총체적인 응전은 젊은이의 생명이다. 아래의 글은 대학생 환경활동의 핵심을 캐내어보고 그 핵심을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론회를 위한 발제문이다.

2. 환경오염의 영역별 상황

- 물, 대기, 삼림, 쓰레기, 핵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는 전지구적인 것이면서 또한 구체적인 지역의 것이며 대기, 수질, 폐기물, 삼림, 핵 등의 영역에 걸쳐있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여러 영역간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독립적인 특수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각 영역에 대한 원인 진단을 성실하게 하노라면 모든 환경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배경 속에서 거대규모로 압도해오는 오염원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며 정치문화적 구조를 개방화, 선진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서 쓰레기를 줄고 캠페인을 하는 '작은' 실천보다 더 시급하게 '큰' 실천이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나 활동적이며 전체적인 인식을 얻기를 원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볼때 이는 당연한 것

이라 하겠다. 자, 그럼 몇몇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물

이미 해마다 우리는 물파동을 겪고 있다. 89년에는 수도물에서 합성세제, 중금속, 세균이 검출되어 전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집집마다 생수를 배달해 마시고 정수기를 설치하고 약수터에 줄을 썼다. 90년 여름에는 수도물에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이 검출되어 다시 한번 난리가 났다. 이때 정부는 수도물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번 오염된 자연은 쉽게 되살릴 수 없다. 91년 봄에는 대구시민 250만이 마시는 수도꼭지에서 맹독성인 페놀이 검출되었다. 대구에서 40km 떨어진 구미의 공장에서 나온 페놀이 낙동강을 따라 하류로 흘러가 대구의 다사정수장으로,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흘러들어갔는데도 환경처도, 수자원공사도, 대구시청도 전혀 사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가 또다시 맑은 물 공급대책을 되풀이한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공장이 온갖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한밤중에 몰래, 비밀배출구로 몰래 강물에 흘려보내고 있다. 온 들판과 골짜기에서는 맹독성 농약이 뿌려져 강물로 흘러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강가 쓰레기를 줍는 것이 어떻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겠는가? 그것은 객관적, 본질적인 오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산업폐수의 경우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있기에 가장 무서운 오염원이다. 수질오염의 주범은 결코 쓰레기가 아닌 것이다. 근본적으로 강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예컨대 대학생들은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끈질긴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민간환경단체, 또는 전문가와 함께 일상적인 시료채취와, 주,야간감시활동 등을 전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2-2 대기

대기문제는 특히 도시에서 대단히 심각한 양상이다.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대기문제이다. 조사에 따르면 86.9%의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을 들이키지 못하고 불안해한다고 한다. 이는 대안없는 자동차 생산이 빚은 재앙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오존경보제를 도입하고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저공해 디젤엔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이런 때 전국 대기오염 전광판을 일제히 조사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미 부분적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광판은 무용지물이고 작동하지 않고 있다. 1기당 8천-1.2억원짜리 기계들이 쓸모없이 자리만 지키고 품만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오존 등의 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2-3 삼림

삼림은 국토의 허파이고 삼림의 최후 보루는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 하나의 넓이는 호랑이 한 쌍이 살 수 있는 행동권의 면적인 400km로 지정하도록 국제자연보존연맹으로부터 권유받고 있다. 그런데 이 최후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덕유산의 경우를 보면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해서 대규모 삼림파괴가 저질러지고 있다. 한국 특산종인 구상나무가 균락을 형성하고 구천동 계곡물이 끊어져 흐르는, 8-9등급 극삼림의 무주에 이미 60만평의 대규모로 골프장, 스키장, 양수발전소 등을 속속 건설 중이다. 현재 국립공원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지구, 농어촌지구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연보존지구는 법적으로 보면 학술행위 이외에는 절대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 정서는 자연보호에 대한 의지보다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 쪽으로 기울어 있기에 기공식 등등의 공사일정이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대규모 파괴는 특정기업 쌍방울에 대한 특혜의 의혹과 결부되고 있다. 평창군의 삼성, 형성의 현대, 발왕산의 쌍용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기업과 정부의 독주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환경과피대회라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이제 한국사회가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면서 이전에는 전혀 없던 자연과피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현대그룹의 대규모 해외 벌목이 그것이다. 이를 볼때 삼림문제 역시 산에 가서 리본 달고 쓰레기 줍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쓰레기

쓰레기는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발생량이기보다는 그 처리방식이다. 1인당 쓰레기배출량은 서울이 가장 높아 1일 기준 1.4kg으로 선진국 수준보다 약간 밀들고 있으나 그 처리방식이 매우 후진적이어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금까지 의존해온 단순 매립 방식은 위생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양과 수질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물론 정부가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소각방식 또한 대기오염의 위험을 안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재활용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재활용. 그렇게 해서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5 핵

현대세계의 지킬박사와 하이드, 핵...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 아래 핵발전소는 인류에게 제 3의 불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인식되면서 전세계에 속속 건설되어왔다. 그러나 핵발전소의 확산은 체르노빌 사고로 대표되는 가공할 핵사고의 위험과 일상적인 방사능 누출, 해결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 양산이라는 세기의 난제를 안겨주었다.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의 사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No fossil fuel, No nuclear), 그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보존운동의 최대과제가 되었다. 인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제고하는 것과 대체에너지

를 개발하는 것으로 고민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핵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 추진되고 있다. 서구 핵산업은 이제 그 상업적 출로를 동아시아지역에서 찾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앞으로 50기가 추가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94년 하반기 최대 쟁점은 핵폐기장 부지선정 문제이다. 현재 텔런트 이정길과 과기처 장관은 연일 방송과 언론을 통해 찬핵광고를 내보내고 "핵폐기장 부지선정,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 광고의 내용은 심각한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어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 주택가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미국의 반월 핵폐기장의 경우 트리튬 등의 방사능물질이 새어나와 내년에 정식 폐쇄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또한 스웨덴 해저동굴의 경우 스웨덴은 이미 국민투표를 통해 201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후 공개행정과 주민의사 수렴을 통해 부지선정을 한 것이므로 한국 상황과는 판판인 데도 불구하고 광고에 거짓이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핵발전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성요소로 해서 국민 대중적인 공론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정치자금의 문제, 전력 독점의 문제, 부실공사의 문제 등등까지 보면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 속에서만 파악이 가능한 사안인 것이다. 하여 특히 이 사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왜곡됨이 없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찬핵-반핵간의 공론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3. 대학생 환경 활동의 역할과 방법론

첫째, 대학생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구조들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환경문제에 얽힌 정부부처간 역관계, 시민환경단체의 발전단계, 지역주민들의 운동 수준 등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 스스로 환경활동의 새로운 연대의 고리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환경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현재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이다. 환경재난의 경험과 환경관련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국민적 차원에서 환경의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환경의식은 현재 '성장'과 '개발의 논리'와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에 한참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에 휘둘려 환경활동의 활성화, 또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펼쳐나갈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이야말로 그 의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메꾸는 주체이어야 한다. 대학생들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당하는 지역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고립의 울타리를 부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야말로 도시와 지역, 시민과 주민을 연계짓고 공통의 유대성을 형성하는 힘이어야 한다.

지금의 환경문제는 정부의 기술 중심주의적 환경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기술 중심주의의 논리로는 오염물질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구조의 개편보다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의 개발에 치중하게 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환경문제는 대량처리의 환경기술로 막아낸다는 식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인구, 자동차, 에너지수요, 공업생산, 자연자원 등 눈에 보이는 요인들이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 환경정보 공개, 의사 수렴, 주민참여,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생태계의 가치 계산 등등 눈의 띄지 않는, 그러나 환경정책 수립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부당하게 무시된다. 항상 대책은 '발생원'에서 시작되지 못하고 '발생후'에 세워진다. 경제부처에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정책을 펴면 환경당국은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고작이다. 수질부문 투자도 전체의 73%가 하수종말 처리장 확충에 투입되며 폐기물 부문에서도 절반이상이 소각처리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수질 청정기술 개발, 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통한 근본적 치유책은 항상 뒷전인 것이다.

도시의 환경활동과 지방의 주민운동의 연대, 국제적 연대, 그리고 환경활동과 타활동의 연대가 요청된다. 이 연대에 있어서 대학생은 가장

강력한 고리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환경활동 진영은 포부를 크고 넓게 가져야 한다. 환경오염의 현장을 찾아가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야 한다. 얼마나 중앙도시가 지역으로 환경오염을 전가시켜왔는가를 눈으로 보고 악취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메랑효과로 도시는 어떻게 썩어들어가고 있는지 배워야 한다. 지역에는 '배부른 환경활동'의 실상을 알려야 하며 도시에는 '지역이기주의'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 열대림에 사는 원주민들은 자국의 삼림을 일본 다음으로 많이 베어가는 한국 기업들이 원주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인들을 초청해서라도 설명해주고 싶어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다기한 활동들과 연대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연대는 운동마다의 개성과 활력이 인정되면서도 그들이 함께 조화되는 '무지개연대'이다. 대학생들은 무지개연대의 선두 전사이다.

위에서 여러 환경 영역의 상황을 짚어보면서 암시되었던 대학생 환경 운동의 방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우선 첫번째 영역으로 환경문제가 관련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조사하고 감시하는 방법들이 있다. 현재 환경문제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한강 주야간 감시활동, 대기 전광판 조사, 국립공원 생태계 조사,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산업 폐기물 처리 현황 조사, 핵에 대한 홍보활동 등등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있다. 예를 들면 오염사que 고발, 오염 기업 불매운동, 상징적인 시위와 집회 등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환경을 자신의 주된 과제로 삼게 될 차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작업이 있을 수 있겠다. 대학내 홍보나 환경교육 실시 등을 진행해야 한다.

4. 대학생 환경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분명한 총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대학생들은 이제 학교내에서의 활동에 갖혀있어서는 안되며 환경문제의 핵심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환경오염을 전가시키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불균등 양상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중심부 도시의 환경활동이 마땅히 주변부 지역의 환경문제에 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감당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대학생들의 환경 활동이 환경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몇 제언을 드린다. 우선 시민환경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대단히 유효하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시민환경단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문제는 여러명의 힘이 모아져야만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하여 각 대학에서 환경동아리들을 구성하기를 제안한다. 각 대학에서

구체적이며 대중적인 사업들을 통해 환경의식을 확산하고 환경활동의 힘을 모아나갈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몇몇 환경동아리들에서는 안산 에코폴리스 프로젝트, 기획 환경탐방, 대학 환경영향평가 등의 흥미로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환경활동의 터를 닦고 각자의 터에 기반하여 대학생 환경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경험이 모여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정체성에 입각한 활동들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모이게 되면 외형적인 규모와는 무관하게 실속없는 연대가 되기 십상이다.

현재 한국에서 환경 활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있다. 개척자로서의 사명과 보람을 가지고 난관을 함께 극복하면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토론 II-1]

주제발표 II에 대한 토론

조 현 천(대림전문대학 실무영어학과 학생)

우리는 그동안 국가 경쟁력 강화, 국제화 등의 구호 아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 환경문제가 최초로 대두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 이다.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로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런던과 LA의 스모그 현상, 일본에서의 이따이이따이병과 같은 공해병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오늘날 환경에 관한 2대 법률이 제정, 시행 되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환경보전운동은 본체도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80년대를 거쳐 90년대 중반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자연파괴'를 합법화하면서 인간중심의 개발로 현재 심각한 환경오염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환경오염문제를 앞에서 영역별로 크게 물, 대기, 삼림, 쓰레기, 핵 등으로 살펴 보았듯이 환경파괴와 오염은 이제 일상 생활의 주변 어디서나 확인될수 있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체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1991년에 수돗물에서 맹독성 물질인 폐놀이 검출된 것이라든가, 낙동강 오염사태 재발, 영산강 오염 등으로 인해 식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매일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배기가스로 잦은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 등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

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환경오염은 공장, 교통수단 등과 같은 민간경제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공장의 배출기준이나 차량의 배기 기준의 설정과 집행은 모두가 정부의 규제적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에 미진함에 있어서 오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규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민간차원의 환경보전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을 분석하고 법률전문가들은 정부의 법률을 검토하여 조례를 만들고 연구해서 이를 가지고 매연을 내뿜는 공장은 조례를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매연을 줄여 나가는 공장은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도 한다고 한다.

환경보전활동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개념이 활동이념의 중심이어야 하며, 환경문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환경오염원을 적극 차단하고 직접 오염현장에 뛰어들어 조사하고, 끈질긴 감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순수한 실험정신과 진취적인 행동력과 사고력을 겸비한 대학생 집단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환경오염이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는 식물학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는 의학자를 비롯하여 경제와 법률전문가 등 우리 사회의 양식있는 지식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 대학생들은 사회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환경정보를 보급하고 환경의식을 확산하는데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습득하여 스스로 인식의 변화를 먼저 가져와야 한다. 경제개발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해문제는 우선 참아야 하고, 후에 풍요로운 사회가 이룩되고 나서 공해방지에 주력하고 환경도 개선하자는 생각을 완전히 뜬어 고칠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가진 이들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하면 일반시민, 주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환경캠페인, 지역환경감시, 환경시위, 집회, 공해 피해 주민 지원활동 등을 주도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연대의식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즉 각 동아리, 자치기구 등 상호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기구간의 연대, 학교와 학교간의 연대, 더 나아가 학교와 지역단체간의 연대가 이루어져서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념적인 개선책들을 머리속에서 비워 버리고 좀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활동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각 학교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언론협의회, 각 단대별 회장단 등이 주축이 되어 일정한 계획을 준비하여 대학내 홍보나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서로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순번제로 환경정화에 앞장 선다면 어느 소수집단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다소 난관에 부딪치게 되겠지만 일단 정착이 된다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통해서 학우들의 환경문

제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학내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학우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학내 환경운동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하기가 간단하므로 의외로 높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교수에게서 검인 받은 보고서 용지나 제도용지, 소책자나 신문 등은 각 강의실에 다다 배치해 놓은 폐지수집함에다 수거 할수 있도록 유도한다.
- 1회용 종이컵은 종이컵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Box에 모다 두었다가 휴지 제조업 체나 농촌봉사활동시 사용하도록 한다.
- 빈깡통은 캔압착기로 압착하여 모아 두었다가 분기별로 제조회사에 보내질수 있도록 한다. (1만개를 보내면 자전기 1대를 받는다)
- 폐건전지는 폐건전지 수집함에 수거하여 제조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음식물 발효기에 넣어 퇴비용 또는 사료용으로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봉사활동시 농촌에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참여 자세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물론 난관도 많이 있겠지만 학생, 교수, 교직원인 삼위일체가 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환경문제는 자기편의주의적인 그릇된 사고방식과 무책임한 행동에서 기인되었음을 자각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생활습관에 따른 생활속의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토론 II-2]

주제발표 II에 대한 토론

최운정(부산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생)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이다.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이며 차세대 인류를 위해서 현재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발제자가 지적한대로 '의식'과 '실천' 사이에 괴리감이 있고, 이 괴리감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 하나쯤은...한 번만...설마...하는 생각 그리고, 지구의 자정능력에 대한 과신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시급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것이 생존권의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감시자의 역할 즉, 행동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대학생들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물은 인간생활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체의 근원임에도 물에 대한 고마움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오염되고 있다는 자각이 너무 늦은 바 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믿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생수시판이 허용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물을 수입하라는 압력을 받는 형편에 놓여 있다. 또한, 상수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관리 또한 철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발제자가 제언한대로 철저한 감시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물을 오염시키는 세계, 기류, 음식을 찌꺼기 등 생활 폐수에 대한 홍보 및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것, 공장 폐수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 그리고,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판과 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대기오염의 주범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리고, 절제하는 방법에 대한 제시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작업까지도 대학생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 선행해서 실천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대학생 자신들의 자가용 수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곧, 환경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가 편한대로 마구 하더라도 너만은... 너 하나만이라도 환경문제에 철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일함으로부터 탈피하는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삼림문제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지적대로 대기업과 정부의 결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기업의 기업경영의 정책수립자(이사진, 중역)와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대체로 고학력 소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환경문제에 앞서서 그렇게 기업의 이윤, 국가적인 이익에 앞장설 수 밖에 없는가?

그들을 설득할 주체는 누구인가? 그와 같은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그룹이 가지고 있는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가?

대학생들이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선동, 데모 형태가 아닌, 재미나면서도 설득력 있고 빠른 시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연극, 음악(CF 송, 콘서트), 문학작품, 각종 포스터, 전람회, 언론매체 그리고 방송을 통한 오락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이 중심점이 된 축제같은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대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 뜻있는 지도층과의 연계, 세계 환경 운동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와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이 학생신분을 벗어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또는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도 학창시절에 습득된 행동, 지식, 가치관에 대해 잊지 않는 도덕성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 발제자가 생각하는 접근방안은 무엇인가?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은 덜 버리고, 철저히 분리하고, 버릴 때 발생할 수 있는 공해는 최대한 제거해서 버리고 또 하나, 철저한 재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국민의 의식이 평준화되지 않고 의식이 낮을 때 혹은 '국민의 의식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행정도 국민도 함께 부끄러워해야 하는 강제성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핵 문제 역시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제정치적 다변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회의와 세계인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문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정보와 생존권이 위협을 받지 않는 공동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만이 받는 위협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지역 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혜를 입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캠페인성에서 생활화 즉, 대국민적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생존의 방식이며 이것을 위한 생활화로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만 한다. '환경'이란 강제성이나 운동성 그리고, 특수한 사람들이나 특정 분야의 몫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힘의 한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제나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즉,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 우리는 굶주림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한 다수확에 성공했다.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난 현 시점에서 우리는 환경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핵문제를 예로 든다면, 국제정세와 요구 등에 의해 필요악인 것을 알면서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필요'보다도 '악'이 증가하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욕구를 줄여가는 방법, 필요 부분에 대해 끝까지 욕구충족을 해야만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고에서 절제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사는 윤리에 대한 이치를 깨달을 때, 다급한 환경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겸손함과 인간의 절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